

행위소 구조에 대한 세 가지 모델*

– 그레마스, 꼬께, 풍타뉴를 중심으로

최용호**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기호학적 물음의 세 가지 층위
- III. 행위소 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물음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파리학과 기호학에서 제시한 행위소 구조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에서 제시한 기호학적 분석의 세 가지 층위에 따라 논의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메타적 층위, 메타-메타적 층위, 메타-메타-메타적 층위가 그것이다. 메타적 층위는 메타언어의 기술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레마스의 행위소는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만을 수행한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은 모두 배제된다. 이러한 배제가 가능한 것은 그의 모델이 역행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코케의 모델 역시 역행논리에 의존해 있지만 그가 제시한 비주체라는 개념은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난 예외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풍타뉴는 오히려 이러한 예외를 규범으로 상정하고 순행논리에 따른 기호학적 분석을 길을 제시한다. 메타-메타적 층위에서는 메타언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다. 그레마스가 행위소를 술어성과의 관련 속에서 정의하고 코케가 이러한 술어성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화성을 행위소 유형학의 근간으로 확립한다면 풍타뉴는 이러한 발화성의 토대로 신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메타-메타-메타적 층위에서는 인식론적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 지원에 이루어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물음이 제기된다. 파리학과 기호학은 그레마스의 모델이든, 코케의 모델이든, 폰타뉴의 모델이든 모두 현상학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레마스는 의미를 메를로-퐁티에서 차용한 지각 개념으로 정의하고 코케는 주관의 기호학을 현상학적 기호학으로 재규정한다. 폰타뉴의 신체-행위소 개념 또한 메를로-퐁티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모델이 부여하는 강조점을 분명 다르다. 이는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른 인식론적 물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레마스가 논리·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코케는 발화행위를 강조한다. 전자가 형식적 구조주의를 표방한다면 후자는 역동적 구조주의에 호소한다. 폰타뉴는 지각에서 감각 차원으로 더 내려가 의미의 신체적 긴장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서 그의 작업은 더 이상 형식적이든 역동적이든 구조주의적 물음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 볼 때 파리학과 기호학에서 행위소 구조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방식으로 정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열쇠어 : 행위소, 술어성, 발화성, 신체성, 서사기호학, 주관의 기호학, 담화기호학

I. 들어가며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을 일종의 퍼즐 맞추기에 빗댄다.¹⁾ 퍼즐 조각이 아직 남아있어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뜻한다. 이와 다르게 과학의 ‘혁명’은 숨은 퍼즐 조각을 찾아냄으로써가 아니라 기존 퍼즐을 새로운 퍼즐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던 정상과학의 여러 전제들이 흔들리고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쿤의 과학사적 관점에서 이른바 파리학파의 기호학²⁾은 지난 과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수

1) 토마스 S. 쿤 저, 김명자·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1999, 106~116쪽.

2) ‘파리학파’라는 용어는 1983년 미셸 아리베와 장-클로드 코케가 그레마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스리지 학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오늘날 파리학파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동일한 과학적 패러다임 하에서 기호학적 작업이 이

많은 혁신과 도약에도 불구하고 정서과학의 발전 양상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보여준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행위’ 기호학에서 ‘정념’ 기호학을 거쳐 ‘담화’ 기호학³⁾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은 흡사 흠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짜맞추어간 흥미진진한 도정에 견줄만하다. 『정념의 기호학』 「서론」에서 자크 폰타뉴(Jacques Fontanilles)는 이러한 ‘퍼즐 맞추기’ 작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스스로를 하나의 행로로서,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 안에, 그리고 서로에 의해 함축되어 있는 모델들의 위계적 배치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기호학 이론은 하나의 구축활동으로 간주된 이 행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⁴⁾ 물론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이 제시될 때 기존 모델은 상당한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종종 이 변화는 그동안 확고부동한 것으로 간주되던 기본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학과 기호학의 역사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 모델에 대한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수정·보완·완성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기호학적 실천(*Pratiques sémiotiques*)』(2008)에서 폰타뉴가 최근 선보인 기호학적 기획, ‘기호(signe)’에서 시작해서 ‘텍스트(texte)’를 거쳐 ‘사물(objet)’, ‘실천(pratique)’, ‘전략(stratégie)’, ‘삶의 형태(forme de vie)’로 이어지는 원대한 기획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파리학과 기호학이라는 하나의 퍼즐은 다른 퍼즐로 대체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면서 점점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 3) 여기서 담화 기호학은 폰타뉴가 제시한 기호학 이론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폰타뉴는 『담화 기호학(*Sémiotique du discours*)』에서 담화 개념을 중심으로 행위, 인지, 정념을 새롭게 종합하고자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긴장도식에 의거해 파리학과 기호학에서 고안한 방법론적 개념들을 재 정식화한다. 한마디로 담화기호학은 행위기호학과 정념기호학의 새로운 종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폰타뉴 뿐만 아니라 코케도 자신의 기호학적 기획은 담화적 기호학(*sémiotiques discursive*)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부연하고자 한다.
- 4)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저,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p.37.

더 촘촘해지고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쿤의 과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파리학파의 기호학이야말로 20세기 ‘정상
 과학’의 궤도에 이른, 혹은 가장 가까이 다가간 유일한 기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논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퍼즐 조각은 ‘행위소
 (actant)’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퍼스(Ch. S. Peirce)나 로트만(Y. Lotman)
 등 다른 기호학 이론이나 학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파리학파
 기호학만의 고유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파리학파의 기호학이 서
 사 텍스트 분석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개념적 증표이기도 하다. 주지
 하다시피 기호학 이론은 논리학, 철학, 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 미디어
 연구, 심리학, 생물학, 인지과학 등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학제적, 통섭
 적, 융합적 교류를 통해 발전해왔다.⁵⁾ 여러 기호학 이론과 학파 가운데
 파리학파 기호학의 차별화된 지점은 서사성이라는 복잡한 의미관계를
 ‘기호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잘 정비된 기술적 도구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행위소’는 그 뿌리의 한 줄기를 언
 어학에 뻗고 있지만 무엇보다 서사적 전통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학파 기호학의 특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기호학 이론이 새로운 변신을 모색할 때마
 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기도 하다. 기호사각형이라는 개념이 처
 음 정식화된 이후⁷⁾ 큰 수정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5) 이러한 기호학의 학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 이론(A Theory of Semiotics)』에 잘 소개되어 있다. 에코는 이러한 성격을 기호학의 ‘정치적 경계’라고 부른다.(Eco 1978: 9-14). 오늘날 인지과학의 발달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과의 융합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호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기호계라는 로트만의 개념을 생물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타루트 학파의 최근 연구 경향이 이를 잘 보여준다.

6) 여기서 서사적 전통이란 무엇보다 블라드미르 프로프의 『러시아 민담 형태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형식주의적 전통을 가리키지만 행위에 방점을 둔 행위소 개념이 인물의 성격보다 플롯에 방점을 찍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구의 시학적 전통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 비해 행위소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 학계에서 이 개념은 주로 여러 사례분석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을 뿐 그와 관련된 이론적인 쟁점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기호학적 연구의 전통을 감안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⁸⁾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크게 세 가지 계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서사 기호학(*sémiotique narrative*), 주관의 기호학(*sémiotique subjectale*), 흔적의 기호학(*sémiotique de l’empreinte*)이 그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른바 행위소 모델(*modèle actanciel*)이 첫 번째 계기를 구성한다. 1966년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에서 처음 소개한 이후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로 이 모델에 포함될 행위소의 수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러다 이 모델은 장-클로드 코케(Jean Claude Coquet)가 1984년 상재한 『담화와 그 주체(*Le discours et son sujet*)』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코케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객관의 기호학(*sémiotique objectale*)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새로운 기호학, 이른바 주관의 기호학을 창안한다.⁹⁾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주체(*sujet*)’ 행위소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코케는 종전의 행위소 모델과는 다른 ‘행위소 유형학(*typologie actancielle*)’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선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행위소의 수가 아니라 행위소 유형 구분의 새로운 기준이다. 세 번째 계기는 폰타뉴가 흔적의 기호학이

7) 기호사각형 모델은 그레마스가 그의 첫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라스티에와 함께 발표한 ‘기호학적 제약의 유희(*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1970)’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다.

8)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소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송치만, 「행위소 위상 변화 양상의 기호학적 고찰」, 『프랑스학 연구』 42, 프랑스학회, 2007; 「협조자라는 행위소 역할의 재검토」, 『프랑스학 연구』 45, 프랑스학회, 2008 참조.

9) 주관의 기호학을 국내 처음 소개한 박인철, 「장-클로드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 『기호학 연구』 2, 한국기호학회, 1996 참조.

라고 부른 것과 관련되어 있다. 폰타뉴는 2004년 『소마와 세마(*Soma et sema*)』, 2011년 『신체와 의미(*Corps et sens*)』에서 신체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행위소의 구조를 재검토한다. 주지하다시피 행위소가 그동안 순수하게 형식적·기능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상기할 때 행위소에 신체성을 부여한 ‘신체-행위소’라는 개념 구상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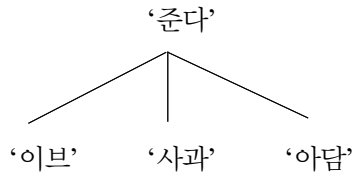
앞서 인용한 문구에서 폰타뉴는 구축활동이라는 하나의 행로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기호학 이론은 이 행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상술한 세 가지 계기, 즉 세 가지 행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이론적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에서 언어학적·의미론적·기호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한 세 가지 층위 구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층위가 그것이다. 앞으로 행위소 개념 구성의 세 가지 계기 곧 서사성, 주체성, 신체성을 이 세 층위에 따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사적 비교연구를 통해 행위소라는 퍼즐 조각이 파리학파의 기호학이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기호학적 물음의 세 가지 층위

그레마스는 『구조의미론』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기술’ 또는 ‘번역’되는 층위를 세 가지로 세분한다. 하나는 메타적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메타적 층위이며, 나머지 하나는 메타-메타-메타적 층위이다.

첫째, 메타적 층위. 메타언어는 대상언어를 전제한다. 메타적 차원에서 대상언어는 다름 아닌 자연언어다. 바로 이 차원에서 자연언어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연언어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술언어가 존재해야 한다. 바로 이 기술언어가 메타언어인 것이다. 예를 들어 ‘행위소’라는 용어는 메타적 층위에 속한 기술언어다. 이 전문용어는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언어학자 테니에르(Lucien Tesnière)가 고안한 것이다. 그는 문장의 구조를 동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 “Eve donne une pomme à Adam(이브가 아담에게 사과를 준다)”¹⁰⁾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위의 그림에서 ‘donner(준다)’라는 프랑스어 동사는 세 개의 행위소를 취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브’가 1차 행위소(prime actant) 곧 능동자(agent)에, ‘사과’가 2차 행위소(second actant) 곧 피동자(patient)에, ‘아담’이 3차 행위소(tiers actant) 곧 수혜자(bénéficiaire)에 각각 해당한다. 전통 문법에 따르면 능동자는 주어에, 피동자는 직접목적보어에, 수혜자는 간접목적보어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문용어에 기대 통사적 기술이 이루어지는 층위가 메타적 층위인 것이다. 그레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층위에서 대상언어는 기술언어(langage descriptif)¹¹⁾로 ‘번역’된다.

둘째, 메타-메타적 층위. 이 층위에서 대상언어는 기술언어 곧 메타언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메타언어는 자연언어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전문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용어들이 정교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무엇보다 잘 정의된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

10) 이 예는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에서 테니에르의 행위소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11) Greimas, *ibid.*, p. 15.

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를 ‘방법론적 언어(*langage méthodologique*)’¹²⁾라고 부르는데 다른 아닌 바로 이 언어가 메타-메타적 층위에 속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주다’라는 동사는 행위소 3 개를 취하는 이른바 3가 동사로 분류된다. 3가 동사는 3개의 행위소를 취할 때 충족(*saturation*)되는 동사를 가리킨다. 테니에르에 따르면 프랑스어 동사는 1가 동사, 2가 동사, 3가 동사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동사’란 무엇인가? ‘행위소’란 무엇인가? ‘가(*valence*)’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는 층위가 바로 메타-메타적 층위인 것이다. 이를테면 테니에르의 언어학 이론에서 ‘동사’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위소의 수에 따라 분류되고, ‘행위소’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 통사적 단위로 정의되며, ‘가’는 동사가 취하는 행위소의 수를 지칭한다. 이처럼 메타-메타적 층위에서는 전문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다.

셋째, 메타-메타-메타적 층위. 이 층위에서 대상언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기술언어와 방법론적 언어의 관계 자체가 된다. ‘기술언어’는 대상언어를 번역하는 데 적합한가? ‘방법론적 언어’는 수미일관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자의 물음이 귀납적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의 물음은 연역적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다. 귀납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연역적으로 재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비판적 물음이 제기되는 층위가 바로 그레마스가 ‘인식론적’이라고 부른 메타-메타-메타적 층위다. 그레마스에 따르면 테니에르가 제시한 ‘수혜자’라는 개념은 ‘능동자’가 아니라 ‘후원자(*bienfaiteur*)’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후원자를 추가할 경우 테니에르의 행위소 목록은 네 개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 동사가 3 개의 행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소의 범주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¹³⁾ 바로 이러한 비판적 물음이 인식론적 층위에서 제기된다.

12) *ibid.*

13) 테니에르와는 달리 그레마스는 행위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요컨대 이론적 논의는 - 타당성의 원리에 따라 - 현실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 수미일관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인식론적 층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III. 행위소 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물음

앞서 살펴본 대로 메타적 층위의 역할은 대상언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메타 - 메타적 층위의 기능은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도록 도구적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메타 - 메타 - 메타적 층위의 임무는 도구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실의 요구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욱 수미일관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층위를 중심으로 파리학과 기호학의 패러다임 하에서 전개된 행위소 개념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해보자. 우리가 살펴볼 행위소 구조에 대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다. 그레마스 모델(1966), 코케 모델(1984), 풍타뉴 모델(2004, 2011)이 그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방점은 각 모델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이들의 변별적 차이에 찍힐 것이다.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제안은 행위소를 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주체 vs 대상
발신자 vs 수신자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소 간 중첩은 범주 융합에 의해 해석된다. 이처럼 “이브가 아담에게 사과를 준다”라는 발화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주체’ 이브는 이중의 관계의 시발점이 된다. 첫 번째 관계는 ‘이브’와 ‘사과’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 관계는 ‘이브’와 ‘아담’의 관계다. 여기서 이브는 주체-행위소이자 동시에 발신자-행위소인 것이다.” (Greimas, *ibid.*, p. 130) 위에서 그레마스는 행위소에 대한 테니에르의 언어학적 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그가 참조한 것이 블라드미르 프로프의 『러시아 민담 형태론(*Morphologie du conte populaire russe*)』이다. 테니에르의 행위소 개념이 문장 차원에 머물러있는 것에 비해 그레마스의 행위소 개념이 문장 차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층위에서 이론적 타당성(귀납적)과 정합성(연역적)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1. 메타적 층위

앞서 언급한대로 메타적 층위는 대상언어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는 층위를 가리킨다. 그레마스에서 코케를 거쳐 풍타뉴에 이르기까지 파리와 기호학의 핵심 과제는 하나의 기호나 문장을 넘어서는 차원, 즉 담화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압축된다. 요컨대 기호학적 분석에서 대상언어는 담화의 형태로 존재한다.

실제로 기호학자는 위상학자의 임무를 떠안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호학자가 제일 먼저 문장 이상의 차원에 대한 분석, 다시 말해 담화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¹⁴⁾

파리학과 기호학 이론이 고안한 여러 ‘기술언어들’은 담화의 구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가운데 행위소는 담화의 행위소적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메타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언어가 지닌 기술력 곧 기술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자.

1) 그레마스 모델

‘행위소’라는 메타언어가 기술하고자 하는 담화의 구조는 주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서사적인 것이다. 전통 시학적 관점에서 이는 플롯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리학과 기호학에서 전통적 플롯은 서사 프로그램으로 정식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변형(transformation)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차적 독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는 서사 프로그램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논리가 아니라 이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 논리¹⁵⁾에

14) J. C.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Klincksieck, 1984, pp. 11~12

15) 서사 프로그램은 이야기가 마무리된 이후 서사적 변형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확정된 다음 재구성된 것이다. 역행 논리는 이처럼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논리를 가리킨

의해 재구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서사성은 완벽하게 프로그램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발신자, 수신자, 주체, 대상, 조력자, 적대자로 이루어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은 이러한 서사 프로그램의 공식적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마스에 따르면 이 모델의 “간결함은 그것이 주체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위치한 욕망의 대상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주체의 욕망은 조력자와 적대자로 투사된 것에 의해 조정된다.”¹⁶⁾ 이 행위소 모델에서 ‘기본 축’, 다시 말해 핵심은 대상-행위소다. 서사 프로그램은 대상의 획득을 위해 가동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행위소들은 이 프로그램이 부여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코케의 모델

『담화와 그 주체』에서 코케는 이러한 대상-행위소 중심의 행위소적 구조를 과감하게 주체-행위소 중심으로 뒤집는다. 그의 모델에서 ‘기본 축’은 “주체 행위소”¹⁷⁾인 것이다. 그가 대상 행위소 중심의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객관의 기호학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기호학을 주관의 기호학으로 부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든 이야기가 결핍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결핍이 충족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할 때 객관의 기호학에서 문제의 핵심은 대상의 결핍이고, 주관의 기호학에서는 주체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와 그 주체』서 코케는 이처럼 행위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천착한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공헌 중의 하나는 주체와 비(非)주체(non-sujet)의 구분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정체성을 결여한 행위소라고 할 수 있다. 비주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파리학파의 기호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코케에 따르면 비주체는 “가장 간결한 형태에서

다. 다르게 순행 논리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축되는 논리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예측 불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16) Greimas, *ibid.*, p. 180.

17) Coquet, *ibid.*, p. 9.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구조적 일관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¹⁸⁾ 말하자면 “주체는 구조, 즉 예측 가능성에 속하고 비주체는 우연에 속한다.”¹⁹⁾ 그레마스의 행위소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코케의 행위소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구조에서 벗어난 예측 불가능성은 이 구조의 예외로서 다루어진다. 이는 서사성이 완벽하게 프로그램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케의 모델은 역행 논리에 저항하는 요소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폰타뉴 모델

위에서 코케가 제기한 문제는 “행위소적 형태론의 안정성과 불안정성”²⁰⁾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폰타뉴가 제안한 흔적의 기호학에서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비주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체-행위소라는 개념은 정상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프로그램까지도 구조적 분석의 틀 안에 포섭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사적 기술의 범위가 성공에서 실패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예측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단지 시련의 논리적·표준적 연쇄뿐만이 아니라 행위소의 신체에 방점을 둔 기호학적 접근은 실패한 행위에, 미숙하고 주변적인 것에, 행위 논리의 역행적 재구성 속에서 비관여적인 것으로 삭제되고 배제된 현상들에 당당한 자리를 다시 부여한다.²¹⁾

코케가 행위소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여 행위소에 대한 형식적 정의

18) *ibid.*, p. 10.

19) *ibid.*, p. 105.

20) *ibid.*, p. 12.

21) J. Fontanille, *Corps et sens*, PUF, 2011, pp. 5~6.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행위소는 “신체적 존재와 인격이 아니라 형태들, 관계의 다발들”²²⁾로 정의된다. 폰타뉴가 행위소에 신체를 부여함으로써 메타적 층위에서 새롭게 기여한 바는 “실패한 행위에, 미숙하고 주변적인 것에, 행위 논리의 역행적 재구성 속에서 비관여적인 것으로 삭제되고 배제된 현상들에” 주목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미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는 의미론적 갈등을 기호학적 논의의 틀 안에 전격적으로 끌어안은 것에 있다. 서사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역행 논리로 인해 그동안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행위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분석의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이후 이런 저런 특정 행위의 관여성은 단순히 탐색 프로그램이나 발화 기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실패한 행위는 프로그램화된 행위만큼이나 의미가 있다. 그 사건적 성격은 행위와 담화가 전개되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여러 가능한 의미작용과 여러 동위소 사이의 갈등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사적 혹은 발화적 사건은 의미론적 가치론적 영역들 간의 긴장의 근원이 되고 경쟁적인 여러 행로들 혹은 동위소들 간의 갈등과 대체의 근원이 된다.²³⁾

그레마스의 모델이 예측 불가능성을 서사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코케의 모델이 예외로 간주한다면 폰타뉴의 모델은 오히려 이를 표준으로 삼아 행위소적 구조를 새롭게 다시 설계한다.²⁴⁾ 그레마스 모델이 예측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행 논리에 따라 서사 프로그램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코케의 ‘비주체’는 이러한 논리에 저

22) Coquet, *ibid.*, p. 9.

23) Fontanille, *ibid.*, p. 6.

24) 예를 들어 폰타뉴는 신체 개념이 기호학 연구에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체에 대한 기호학적 성찰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이는 정념의 기호학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탐구의 영역을 열기 위함이다. 이 새로운 영역은 우리가 보기에 흔적의 기호학 영역이 될 것이다.” (Fontanille, *ibid.*, p.3).

항하는 최초의 행위소라고 할 수 있다. 폰타뉴의 공현은 신체-행위소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다양한 의미론적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길을 연 것에 있다. 역행 논리에서 순행 논리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전환 덕분에 담화의 서사적 구조는 메타적 차원에서 좀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다시 말해 더욱 풍성하게 기술될 수 있게 된다.

2. 메타-메타적 층위

이 층위에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다. 그레마스, 코케, 폰타뉴가 각각 제시한 행위소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의를 떠받치고 있는 개념적 기반이다.

1) 그레마스 모델

그레마스는 행위소를 술어(*prédicat*)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술어성이다. 먼저 다음의 문구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산단위로 정의된 의미소의 하위 부류를 지칭하기 위해 ‘행위소’라는 용어를, 통합단위로 고려된 의미소를 명명하기 위해 ‘술어(*prédicat*)’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의 술어와 최소한 하나의 행위소 간의 결합이 좀 더 커다란 단위를 구성하게 될 터인데 이에 대해 우리는 ‘메시지’라는 용어를 보존하고자 한다.²⁵⁾

테니에르와는 달리 그레마스는 ‘행위소’와 ‘술어’를 통사론적 단위가 아니라 의미론적 단위 곧 ‘의미소’²⁶⁾로 정의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

25) Greimas, *ibid.*, p. 122.

26) 의미소는 의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핵의소와 맥락의소의 결

자면 여기서 의미론은 의미통사론을 가리킨다. 통사론의 기능이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합을 산출해내는 것”²⁷⁾이라고 할 때 의미통사론은 두 ‘의미소’ 곧 술어와 행위소의 결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은 이러한 메시지의 서술적 구조를 모델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시지 = 행위소 + 술어. 그레마스가 제시한 좀 더 복잡한 서술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F/Q (m; a) [A_1, A_2, A_3, A_4, A_5, A_6]^{28)}$$

위의 정식에서 술어의 자리에 F와 Q가 등장하는데 이는 술어 범주가 기능(fonctions)과 성질(qualifications)로 세분되기 때문이다. m과 a는 각각 양태(modalités)와 상(aspects)을 가리킨다. 술어는 이러한 양태와 상에 의해 지배받는다. A는 행위소를 가리킨다. 그레마스는 위에서 행위소의 수를 6개로 제한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은 위에 제시된 다소 복잡한 술어 논리적 구조를 아래와 같이 단순화한 것이다.



합이 의미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Greimas, *ibid.*, pp. 42~54 참조.
 27) Greimas, *ibid.*, p. 117.
 28) *ibid.*, p. 156.
 29) *ibid.*, p. 180.

여섯 개의 행위소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하나의 술어로 기술될 수 있다. 이를테면 주체는 대상을 ‘욕망’하고 발신자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며 조력자는 주체를 ‘돕고’ 적대자는 ‘방해’한다. 이들 각각의 술어들이 행위소들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은 술어성에 의존한다. 행위소의 수를 6 개로, 모든 술어를 세 개의 양태술어(의지vouloir, 지식savoir, 권력pouvoir)³⁰⁾로 과감하게 환원한 단순화 조치로 인해 그레마스 모델은 보편성을 획득했지만 기술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이후 행위소의 구조는 양태와 상, 기능과 성질이 더욱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다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교화 작업이 그레마스가 제시한 술어구조에 여전히 큰 빛을 지고 있음을 지적하자.

2) 코케의 모델

코케는 그레마스가 정식화한 술어논리의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행위소 유형학을 재구축한다. 그가 새롭게 주목한 개념은 발화성(énonciation)이다. 그는 베베니스트(E. Benveniste)에 따라 서술행위에서 ‘말하기(dire)’와 ‘단언하기(asserter)’를 구분한다. 전자와 다르게 후자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떠안는 것을 함축한다. 이는 근본적인 양태성이 발화행위에 항상 수반되고 있음을 뜻한다. 코케는 ‘단언하기’의 이러한 인수(assumption) 기능을 강조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나를 나라고 말하는 것(est ego qui dit ego)”이 아니라 “나를 나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est ego qui se dit ego)”이다.³¹⁾ 코케는 이러한 단언의 인수기능을 메타-의지(meta-vouloir)에 속한 것으로 정의한다. 그가 제시한 행위소 유형학에서 가장 중요한 양태는 메타-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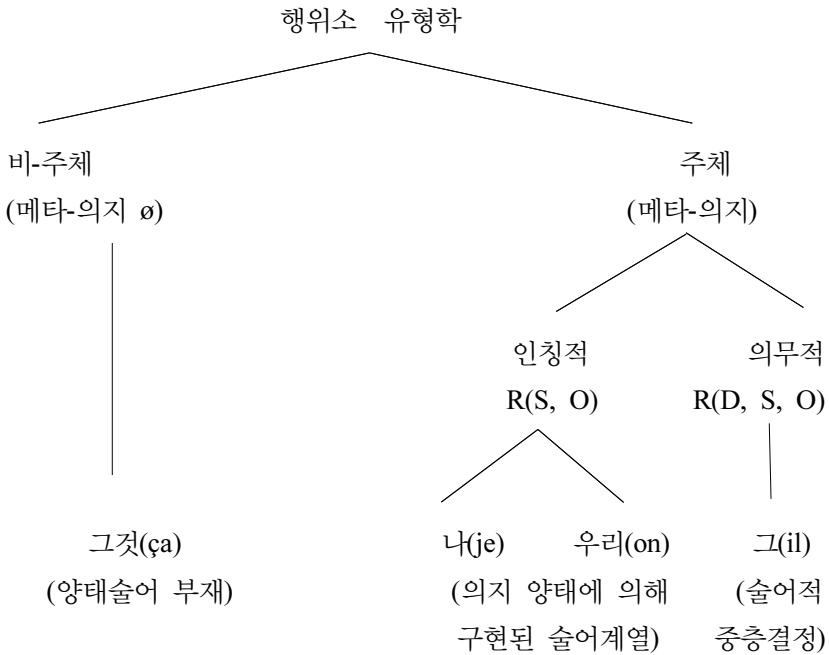
30) 행위소 모델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의지 양태로, 발신자와 대상과 수신자의 관계는 지식 양태로, 조력자와 주체와 적대자의 관계는 권력 양태로 기술된다. 이는 행위소 모델이 서술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이 구조가 양태성으로 환원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31) Coquet, *ibid.*, p. 15.

이러한 메타-의지를 지닌 화자를 발화자(sujet énonçant)라고 부르고 이를 화자(sujet parlant)와 구분한다. 화자가 말하는 주체에 불과하다면 발화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단언하는 주체인 것이다. 바로 이 ‘단언하는 주체’가 코케가 언급한 주체 범주에 속한 것이다. 이와 다르게 비주체는 메타-의지를 결여한 주체를 가리킨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코케는 이러한 비주체를 ‘그것(ça)’이라는 대명사로 표기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ça는 자아의 구성에 필요한 고유한 관계가 부재함을 뜻한다.”³²⁾ 비주체가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말한다(ça parle)”는 것이다. 이러한 ‘그것’으로서 비주체는 언뜻 무의식적 주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에서 주체(Suejt)와 비주체(Non-Suejt)의 구분이 의식이 아니라 발화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자. 주체는 다시 자율적 주체와 타율적 주체로 세분된다. 발화성 개념이 정체성의 유무를 결정한다면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개념은 정체성 구성에 관여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소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정의된다면 코케의 행위소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다. 자율적 주체는 대상(Objet)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반면에 타율적 주체는 타인, 즉 발신자(Destinateur)에 전적으로 의존적이다. 코케는 이러한 발신자를 대명사 ‘그(il)’로 나타낸다. 여기서 ‘그’는 강제적인 제도·법·규범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이방인』에서 뫼르소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인 것이다. 좀 더 세분하자면 자율적 주체는 다시 대명사 ‘나(je)’로 대표되는 범주와 ‘우리(on)’로 대표되는 범주로 세분된다. ‘나’는 나의 주관성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객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자는 주관적 견해를, 후자는 객관적 견해

32) Coquet, *ibid.*, p. 41. 위의 인용문은 코케가 라플랑쉬(J. Laplanche)와 퐁탈리스(J.B. Pontalis)가 펴낸 『정신분석학 용어사전(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에서 인용한 문구를 재인용한 것이다.

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대명사는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객관성을 보증하는 수행적 역할을 수행한다. 코케가 제안하는 행위소 유형학은 다음과 같다.³³⁾



여러 갈래로 가지들이 뻗어감에 따라 위의 나무 그림은 『담화와 그 주체』에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는 메타의지의 부재를 나타내는 기호다.)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메타-의지라는 양태의 유무를 결정하는 발화성이라는 개념이다.

33) 코케가 제시한 행위소 개념은 테니에르의 개념을 좀 더 세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테니에르는 행위소의 유형을 크게 3 가지로 나눈다. 1차 행위소(prime actant), 2차 행위소(second actant), 3차 행위소(tiers actant)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비주체는 1차 행위소로 분류된다. ‘나’와 ‘우리’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원적 관계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2차 행위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발신자가 추가되어 3원적 관계를 나타내는 타율적 주체는 3차 행위소가 된다.

3) 풍타뉴의 모델

앞서 지적했듯이 ‘그것’으로 대변되는 비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와 닮아 있다. 『담화 기호학』에서 풍타뉴는 구조에서 벗어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일종의 ‘마리오네트’³⁴⁾로서의 비주체를 정념의 근원인 하나의 ‘신체’로 간주한다.

비주체는 서술(prédiquer)할 뿐이다. 그는 사전에 확정된 행로, 다시 말해 이미 부과된 일군의 프로그램만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의 신체로, 담화의 장 속에서 위치를 점유하는 하나의 신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감정과 정념의 근거지가 된다.³⁵⁾

풍타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주체에 한정된 신체성을 모든 행위소에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 제시한 ‘신체-행위소’라는 개념은 이처럼 행위소에 신체성을, 신체에 행위소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레마스의 행위소가 술어성에 의존하고 코케의 행위소가 발화성에 기대고 있다면 풍타뉴의 행위소는 이처럼 신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행위소는 크게 ‘자아(Moi)’와 ‘자기(Soi)’로 나뉜다. 메를로-퐁티의 용어를 빌려 풍타뉴는 전자를 ‘피육(chair, 皮肉)’³⁶⁾이라는 개념으로 후자를 ‘신체(coprs)’라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상학에서 신체는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한다. 신체가 항상 ‘자기’ 신체인 이유는 이러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의 공헌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신체에 가장 근원적인 지향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의 후기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육’은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이다.

34) Coquet, *ibid.*, p. 105.

35) J. Fontanille, *La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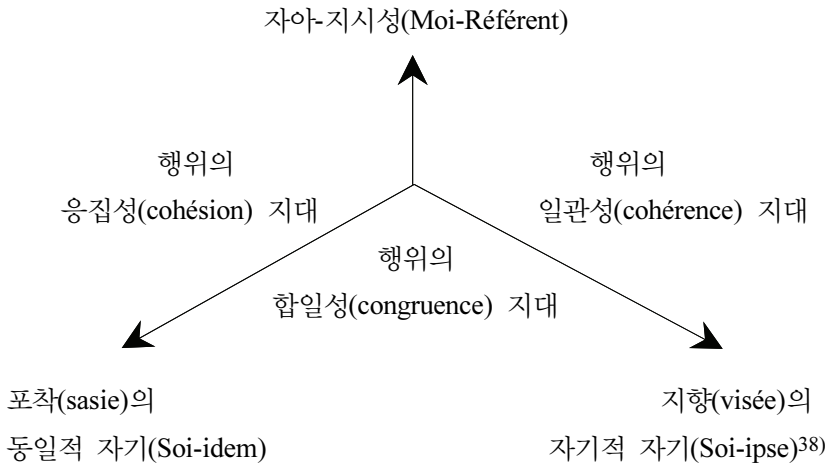
36) 일반적으로 메를로-퐁티의 ‘chair’는 ‘살’로 번역된다. 그런데 이 용어로 번역할 경우 혼적의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기타 다른 용어들과 구별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살이라는 용어 대신에 피육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신체 개념이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한다면 이러한 관계의 가능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피육이라는 개념인 것이다. 폰타뉴는 메를로-퐁티의 이 개념을 모든 발화의 가능 조건, 다시 말해 발화의 중심으로 재해석한다. 요컨대 자아-피육(Moi-chair)은 위치설정(*prise de position*)과 참조중심(*référence*)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행위의 좌표를 구성하는 것이 자아-피육의 행위소적 역할인 것이다. 코케의 발화성이 그레마스의 술어성의 근원이라면 폰타뉴의 신체성은 이처럼 발화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자기-신체(*Soi-corps*)는 피육이라는 발화 중심을 참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신체-행위소다. 이 행위소는 다시 동일적 자기(*Soi-idem*)와 자기적 자기(*Soi-ipse*)로 세분된다. 동일성과 자기성이라는 개념은 폰타뉴가 폴 리쾨르의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Soi-même comme un autre*』에서 차용한 것이다. 자아-피육이 중심을 이동할 때마다 자기-신체는 타자성과 대면해야 한다. 동일적 자기는 이러한 대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유지·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타자성이 제기하는 문제를 반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자기적 자기는 이 문제를 목적론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지향적’ 태도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감수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담화와 그 주체』에서 코케는 “기호학적 야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 무용수의 춤사위를 언급한다. “공간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중심”³⁷⁾이 그것이다. 코케는 이 중심을 발화의 중심(*instance énonçante*)으로 해석한다. 바로 이 중심이 담화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자. 이 중심은 무용수의 신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이 신체적 중심이 폰타뉴가 ‘자아-피육’이라고 부르는 신체-행위소에 해당한다. 이 중심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동일적 자기’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포착’되는 반복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자

37) Coquet, *ibid.*, p. 9.

기적 자기'는 이 움직임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향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용수로서의 역할이 동일적 자기라면 이 역할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기적 자기인 것이다. 코케가 '기호학적 야망'을 드러내기 위한 든 이 사례는 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다. 폰타뉴가 새롭게 제시한 신체-행위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이 서사적 역할, 즉 동일적 자기를 강조하고 코케의 주체-행위소가 이를테면 자아-피육이라는 발화 중심에 착목한다면 폰타뉴의 신체-행위소는 자아-피육과 자기-신체를 모두 고려한 역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 메타-메타-메타적 층위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모델은 각기 다른 시기에 정식화된 것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모델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제기된 인식론적 물음에 대한

38) Fontanille(2011), p. 26.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각기 다른 응답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인식론적 물음을 검토해보자. 이는 그레마스가 ‘인식론적’이라고 부른 메타-메타-메타적 층위에 속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 그레마스의 모델

그레마스가 1966년 『구조의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한마디로 의미의 문제다. 기호학은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일 뿐만 아니라 의미의 과학인 것이다.³⁹⁾ 그레마스는 이러한 의미의 과학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임을 역설하면서 메를로-퐁티, 레비-스트로스, 라캉, 바르트 등을 언급한다. 이는 그의 『구조의미론』이 전적으로 구조주의 정신의 산물임을 말해준다. 이 시대적 정신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그의 응답이 곧 의미통사론인 것이다.

그레마스에 따르면 의미의 기원은 지각이다.⁴⁰⁾ 앞서 지적한대로 이는 현상학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의미론적 기술 단위로 제시한 의미소는 개념은 지각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미소를 구성하는 핵의소와 맥락의소라는 개념은 지각이론에서 언급되는 형상과 배경에 각각 상응한다. 이처럼 의미소는 지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레마스의 사유 체계에서 현상학과 구조주의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아니다. 의미소의 하위 단위로 정의되는 행위소 역시 지각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그레마스는 행위소 모델을 하나의 ‘공연(spectacle)’⁴¹⁾에 비유한다. 공연이 지각되는 것이듯 하나의 공연으로서 행위소 모델은 지각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39) 주지하다시피 에코는 앞서 인용한 『기호학 이론』에서 이 두 과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선보인다. 이런 이유로 에코의 기호학은 영미 기호학과 유럽 기호학의 종합적 판본으로 간주된다.

40) 예를 들어 그레마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프랑스에서 메를로-퐁티에 의해 고안된 지각 이론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는 20세기 인간과학의 일반적 태도로 보인다는 점이다.”(Greimas, *ibid.*, p. 8)

41) 테니에르는 발화체를 하나의 공연(spectacle)에 비유하는데 그레마스는 이러한 ‘비유’를 자구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행위소 모델을 구축한다. Greimas, *ibid.*, p. 173) 참조.

공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항구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의 내용은 매번 바뀌고 배우들도 바뀌지만 공연-발화체는 항상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 항구성이 역할의 동일한 배분에 의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군의 역할들의 배분의 항구성은 말하자면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위소의 수는 의미 지각의 선험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⁴²⁾

행위소 모델은 “역할의 동일한 배분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항구적인 “공연-발화체”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역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 술어논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행위소의 수에 제한을 가한 “의미 지각의 선험적 조건”은 이처럼 논리·의미론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구조의미론』의 지배적인 인식론이 구조주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구조는 지각적이면서도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항구성을 보증하는 것이 논리의미론인 것이다. 행위소 모델은 현상학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처럼 논리·의미론적으로 다듬어진 구조주의적 기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코케의 모델

그레마스와 대립각을 세운 코케는 프랑스 구조주의의 역사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⁴³⁾ 박인철에 따르면 “코케는 구조언어학 내에서 내재주의가 배제하는 실재 범주 *catégorie réelle* 혹은 실적 *substance*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구조 못지 않게 중시하는 이론가들, 즉 야콥슨, 투르베츠코이, 브뤼달 그리고 벤베니스트와 같은 실재론자들을 내세워 내재주의자들이 배제했고 또한 이들 때문에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영역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했다.”⁴⁴⁾ 코케의 작업이 여전히 구조주의적이라고

42) Greimas, *ibid.*, p. 173.

43) 박인철, 앞의 글, 72쪽.

44) 앞의 글, 73쪽.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형식적 구조주의에 간혀있지는 않은 것이다.

1984년 출간된 『담화와 그 주체』는 책의 제목이 잘 드러내듯 더 이상 논리·의미론적 기획에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 벤베니스트로부터 차용한 ‘발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발화는 발화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코케의 모델에서 주체성과 발화성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60년대 구조언어학적 패러다임이 80년대 화용론적 패러다임으로 바뀐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이 구조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구조주의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그레마스의 모델이 랑그적 차원의 구조주의를 표방한다면 코케의 모델은 파롤적 차원의 구조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케의 구조주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이러한 역동적 구조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체-행위소 개념이다. 주체 행위소는 술어논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을 ‘단언’해야 하는 것이다.

3) 풍타뉴의 모델

앞서 언급한 『기호학적 실천』에 잘 드러나 있듯이 풍타뉴의 기호학적 기획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텍스트적’ 경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는 과감하게 텍스트적 경계를 넘어서서 ‘사물(objet)’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를테면 그의 기획은 ‘삶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기호, 다시 말해 세미오시스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텍스트의 경계 안에서 세미오시스는 텍스트적인 것이었다. 텍스트의 경계 밖에서 세미오시스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풍타뉴의 대답은 신체적 세미오시스라는 개념 속에 잘 담겨있다. 구조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그레마스는 세미오시스를 시니피앙

과 시니피에, 표현과 내용, 외부와 내부의 상호전제로 정의한다. 폰타뉴는 상호전제라는 논리적 개념을 폐기하고 외부와 내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신체에 부여한다.

언어의 두 층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실제로 신체에 부여할 경우 이러한 신체적 매개의 본성에 대해 자문해보아야 한다. 여기서 신체의 피복(enveloppe)-매체/용기(contenant)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피복은 두 면을 지니고 있다. 한 면은 내용을 향해 (피복-매체/용기) 있고 다른 한 면은 표현을 향해 (피복-기입표면) 있다. 게다가 모든 신체-행위소는 내용에 대해 매체/용기가 될 수 있고 다른 신체-행위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흔적/압흔(empreintes)들을 지닐 수 있다.⁴⁵⁾

내부적이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신체야말로 내용과 표현이라는 언어의 두 층위를 연결할 수 있는 기호 중의 기호인 것이다. 물론 그레마스가 의미의 기원을 지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학에 기초한 그의 모델이 신체적 세미오시스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각의 현상학은 기원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폰타뉴는 지각적 차원에서 감각적 차원으로 더 내려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신체적 세미오시스의 주요 원리로 수용한다. 기호와 텍스트 차원을 넘어서서 사물, 실천, 전략,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체성에 대한 물음 덕분이다. 폰타뉴의 기호학적 기획이 여전히 구조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구조주의 이후의 물음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이다.

45) Fontanille, *ibid.*, p. 97.

IV. 결론

지금까지 전개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메타적 층위는 메타언어의 기술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레마스의 행위소는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만을 수행한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은 모두 배제된다. 이러한 배제가 가능한 것은 그의 모델이 역행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코케의 모델 역시 역행논리에 의존해 있지만 그가 제시한 비주체라는 개념은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난 예외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풍타뉴는 오히려 이러한 예외를 규범으로 상정하고 순행논리에 따른 기호학적 분석을 길을 제시한다. 메타-메타적 층위에서는 메타언어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다. 그레마스가 행위소를 술어성과의 관련 속에서 정의하고 코케가 이러한 술어성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화성을 행위소 유형학의 근간으로 확정한다면 풍타뉴는 이러한 발화성의 토대로 신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메타-메타-메타적 층위에서는 인식론적 물음이 제기된다. 파리학과 기호학은 그레마스의 모델이든, 코케의 모델이든, 풍타뉴의 모델이든 모두 한편으로는 구조주의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레마스는 의미를 메를로-퐁티에서 차용한 지각 개념으로 정의하고 코케는 주관의 기호학을 현상학적 기호학으로 재규정한다.⁴⁶⁾ 풍타뉴의 신체-행위소 개념 또한 메를로-퐁티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모델이 부여하는 강조점을 분명 다르다. 이는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른 인식론적 물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레마스가 논리·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코케는 발화행위를 강조한다. 전자가 형식적 구조주의를 표방한다면 후자는 역동적 구조주의에 호소한다. 풍타뉴는

46) 박인철, 「장-클로드 코케의 ‘현상학적 기호학」,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참조.

지각에서 감각 차원으로 더 내려가 의미의 신체적 긴장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의 작업은 형식적이든 역동적이든 더 이상 구조주의적 물음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소마와 세마』, 『신체와 의미』, 『기호학적 실천』에 자주 등장하는 부르디외(Bourdieu), 레비나스(Lévinas), 리코르(Ricoeur), 들뢰즈(Deleuze)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논의를 간략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레마스 모델	코케 모델	퐁타뉴 모델
메타적 층위 (예측 불가능성의 지위)	역행논리 (배제)	역행/순행논리 (예외)	순행논리 (표준)
메타-메타적 층위	술어성	발화성 · 주체성	신체성
메타-메타-메타적 층위	형식적 구조주의 (논리의미론)	역동적 구조주의 (화용론)	후기구조주의 (비텍스트적)

참고문헌

- 그레마스, 알지르다스 J. · 폰타뉴, 자크 저, 유기환 · 최용호 · 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 박인철, 「장-클로드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 『기호학 연구』 2, 한국기호학회, 1996.
- _____, 「장-클로드 코케의 ‘현상학적 기호학’」,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 송치만, 「행위소 위상 변화 양상의 기호학적 고찰」, 『프랑스학 연구』 42, 프랑스학회, 2007.
- _____, 「협조자라는 행위소 역할의 재검토」, 『프랑스학 연구』 45, 프랑스학회, 2008.
- 쿤, 토마스 S. 저, 김명자 · 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1999.
- Coquet J-C, *Le discours et son sujet*, Klincksieck, 1984.
- _____, *La quête du sens*, PUF, 1997.
- Fontanille, J., *La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e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2004.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_____, “Formes de vie: des jeux de langage à la phénoménologie des cultres”, *Metodo, International Studies in phenomenology and philosophy*, Vol. 3. Numero 1, 2015.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Greimas, A. J. et Rastier, F., “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in *Du sens*, Seuil, 1970.

Three models on the actantial structure: with special regard to Greimas, Coquet and Fontanille

Choi, Yong Ho

The focus of this paper is placed on the concept of ‘actant’ developed within the so-called Paris School Semiotics. Among many others, three models formulated at different times by Greimas(1966), Coquet(1984), Fontanille(2004, 2011) is being discussed. Our discussion unfolds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introduced by Greimas in favor of semiotic description between meta-level, meta-meta level and meta-meta-meta level. The meta-level is concerned with the scope of description of a given meta-language. The Greimas’ actant model describes predictable narrative programs while Coquet’s model allows unpredictable elements with the concept of non-subject. Fontanille’s concept of body-actant is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s as it makes the narrative principle out of unpredictability. The meta-meta level is the level in which a definition is given to the meta-language. The Greimas’ actant is defined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predication. Coquet’s model makes use of the concept of enonciation which is at work behind the predication. Fontanille makes one step further with his concept of body-actant. According to him, the enonciation is rooted in the bodiness. In the meta-meta-meta level, the epistemological question is raised. While The Greimas’ model is based on the formal structuralism, The Coquet’s one appeals to the dynamic structuralism. It is noted that Fontanille’s model formulated in 2000 is not stimulated by the structuralism whether formal or dynamic.

Keywords : actant, predication, enonciation, bodiness, narrative semiotics, subjectal semiotics, semiotics of discourse

투고일 : 2017. 08. 04. / 심사일 : 2017. 09. 10. / 게재확정일 : 2017. 09. 17.

